



캠스필드코리아 친환경 액체세제 '사피'

8가지 자연원료로 제조 ... 세탁물속 중금속도 제거

살충제 달걀, 생리대 사태 등으로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가 확산되면서 인체에 무해한 세제, 세정제 등에 관심을 두는 이가 많다. 캠스필드코리아의 사피(SAFI)는 식물성 계면활성제와 정제수 등 여덟 가지 자연 원료로 제조한 액체세제다. 박수근 캠스필드코리아 대표는 "화학제품에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도 믿고 쓸 수 있는 세제"라고 제품을 소개했다.

군 물이 강에 이르렀을 때 강물 속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어 사회적 기능도 크다"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음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들어있다. 음료수로 착각해 마셨을 때 곧바로 뱉어낼 수 있도록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쓴맛을 내는 변성제 바이트렉스(bitrex)를 넣었다. 제품은 환경부에서 주는 환경마크를 받았다. 가격은 2L 한 병에 3만6000원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중소기업 유통센터 아이쇼핑 등을 중심으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 사용 적은 양으로 강한 세척력

2015년부터 생산 본격화 자체 물 정제 설비도 갖춰

연 200억 매출 대부분 OEM 자체 상품 매출 20% 목표

◆세척 잘되는 친환경 세제 사피에는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인공색소, 효소 등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런데도 적은 양으로 찌든 때가 제거될 만큼 세척력이 뛰어나다. 보통 전체 성분비의 15% 미만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가 18%가량 들어있기 때문이다. 계면활성제도 식물성을 썼다. 석유계 합성계면활성제는 비염, 아토피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는 사용 후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전하다. 유해 중금속을 제거하는 기능도 갖췄다. 2006년 환경부와 공동 연구에 특히 특화된 중금속 제거제(Na3T-15) 성분이 함유돼 있다. 황사나 미세먼지에서 유입된 세탁물 속 이온성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박 대표는 "회사가 개발한 중금속 제거제는 13개국에 수출된 제품"이라며 "빨랫감을 행



박수근 캠스필드코리아 대표가 자연 원료로 제조한 액체세제 사피(SAFI)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친환경 세제를 접한 게 계기가 돼 제품을 개발했다. 한국도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생각했다. 중금속 제거제가 인기를 끌고 2008년 개발한 도양복원제를 중국에 수출하는 등 회사가 안정세에 접어들자 2015년부터 소비재 생산에 나섰다. 그는 경기 연천에 있는 공장도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는 "먹고 빨랐을 때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 만큼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생각했다"며 "하루에 음용수 65만 L를 생산할 수 있는 정제수 설비를

갖춰놓고 공장 건설 허가도 화학품 공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자체 상품 꾸준히 선보일 것" 회사는 자체 개발 상품군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연 200억원 매출의 대부분이 유한양행 슈가버블 IG생활건강 등의 세제, 표백제 제품을 주문생산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데서 나온다. 내년부터는 이 중 20%인 40억원가량의 매출을 자체 개발 상품을 통해 올리는 게 목표다. 박 대표는 "여성들이 속옷과 스타킹 등을 손빨래하는 데 쓸 수 있는 세제도 곧 출시할 예정"이라며 "pH7의 중성세제로 몸에 직접 닿는 속옷도 피부 자극이 생기거나 옷감이 상하지 않게 세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교양=조이린 기자 archo@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jkim@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9월의 으뜸중기 제품 △오프리스-웨어를 체어 △캠스필드코리아-액상세제 SAFI △제이에이치케이-아빠손잡금장치 △코니맥스-코니맥스 침구청소기 헤드

건자재 계열업체 현대H&S 합병 현대리바트, 종합 인테리어사 도약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로 종합 가구·생활용품업체인 현대리바트가 그룹 내 현대H&S를 합병한다고 18일 공시했다. 가구 건자재를 아우르는 종합 인테리어회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현대H&S는 법인을 대상으로 산업·건설자재 및 설비 부품 공급과 유통, 수출포장, 의료 제조 사업 등을 영위해 온 기업 간 거래(B2B) 전문 도소매업체다. 2009년 현대그린푸드의 100% 자회사로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현대리바트는 공사에서 합병 목적을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토털 인테리어회사로의 도약과 사업 규모 확대라고 밝혔다. 합병 비용은 현대리바트와 현대H&S가 1대 3.273632이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5일로 현대리바트는 존속회사로 남고 현대H&S는 합병 뒤 해산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11월3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이 같

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화영 현대리바트 대표가 현대H&S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두 회사의 합병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H&S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 약 5300억원과 1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현대리바트(작년 매출 7356억원, 영업이익 421억원)의 합병 후 매출 규모는 1조2600억원대, 영업이익은 520억원대로 커지게 된다. 현대H&S는 탄탄한 법인 영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건설자재 유통, 안정적인 해외 소싱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현대리바트가 건자재, 인테리어 부문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리바트는 가정용 가구를 앞세워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실내 인테리어 시장에 본격 뛰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카롤리나 밀러 핀란드 스타트업 사우나 대표 "노키아 쇠퇴, 젊은이들 인식 바뀌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계기됐다"

엑셀러레이터 콘퍼런스 참석 상인 신생기업에 관심이 없었다"며 "그러나 노키아의 몰락과 마틴 미코스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대기업 출신 기술자와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마틴 미코스는 노키아와 HP 등에서 근무한 엔지니어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개발업체인 마이에스큐엘(MySQL)AB의 최고경영자였다. 그는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핀란드 벤처업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물로 유명하다. 밀러 대표는 스타트업들이 핀란드를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꼽는 이유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훌륭한 엑셀러레이터 팀 △탈코(Talkoot: 한국의 '폼잇이' 격) 문화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키우려면 훌륭한 전문가 지원그룹이 있어야 한다"며 "핀란드에선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힘을 합치는 탈코 문화가 벤처생태계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휴대폰 공룡” 노키아가 쇠퇴하면서 오히려 핀란드 젊은이들의 창업의식이 고양되고 벤처생태계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본사를 둔 유럽 대표 엑셀러레이터(신생기업 발굴·육성전문기관)인 스타트업사우나의 카롤리나 밀러 대표(사진)는 2010년 전후 노키아 몰락 이후 핀란드 경제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17일 서울 글로벌라이브강남에서 만난 밀러 대표는 20~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콘퍼런스&데모데이'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에서 그는 "글로벌 스타트업의 트렌드와 육성 정책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밀러 대표는 "과거 핀란드에서 안락하고 근무환경이 잘 갖춰진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편했기 때문에 창업이나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

오토닉스, 50명 공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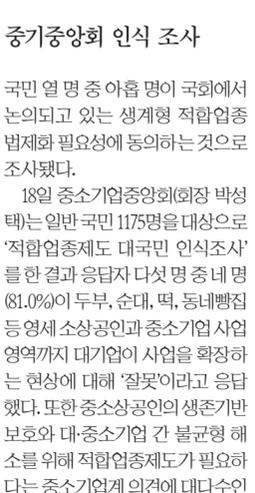
산업용 센서·제어기기업체인 오토닉스가 2017년 하반기 신입·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선발 인원은 50명이며 모집 부문은 △전략기획 △품질보증 △설비자동화 △생산관리 △해외영업 △기술지원 △마케팅기획 △기술전략 △디자인 △기구설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등 14개다. 근무지는 부산 본사와 인천 연구소, 경기 부천에 있는 서울사무소다. 원서는 오는 24일까지 오토닉스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해당 직무 및 회사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7년 설립된 오토닉스는 국내 1위 센서제어기기 제조업체로 미국 브라질 터키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에 진출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제넥신, 지속형 성장호르몬 개발 청신호

임상2상서 키 성장률 높아 바이오벤처 제넥신의 지속형 성장호르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넥신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소아내분비학회(IMPE)에서 한독과 공동 개발 중인 지속형 성장호르몬 GX-H9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유럽·한국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GX-H9은 약효가 1~2주일가량 지속되는 성장호르몬이다. 현재 판매되는 화이자사의 지노트로핀 등은 약효가 하루밖에 지속되지 않아 매일 맞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제넥신은 임상 2상에서 소아환자 43명에게 GX-H9을 6개월간 투여했다

국민 91% "중소 적합업종제 필요"

중기중앙회 인식 조사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법제와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다섯 명 중 네 명(81.0%)이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 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중소기업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 위해 적합업종제도도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에 대다수인



SAMJIN 삼진제약(주) 광고. '추석은 즐겁게' '두통은 지우개' 문구와 함께 '게보린정' 제품 이미지와 효능 설명이 포함된 배너.